

이륜차보험 가입률 52% 불과 보험료 할인 등 가입 확대해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8.6% 감소
이륜차 사고 건수는 52.7% 증가
고위험 계약으로 보험료도 비싸
다양한 안전기술에 할인적용해야



지난 1월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뉴스시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했지만 이륜차 관련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자동차보험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이륜차 관련 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 21만5354건에서 2022년 19만6836건으로 8.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 차량은 1940만대에서 2550만대로 31.5% 증가했음에도 사고 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1만433건(2013년)에서 1만5932건(2022년)으로 52.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 신

고 대수는 212만대에서 220만대로 3.8% 증가에 그치고 있어 신고 대수 대비 이륜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국내 이륜차 사고의 도로 교통사고 건수 비중은 8.8%이나 사망자 비중은 16.7%에 이른다"며 "이륜차 사고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해 비싼 보험료는 이륜차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륜차 운행 특성 및 도로 사정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안전대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의무보험) 가입률이 96.6%인 것에 반해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다. 이륜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가입률은 6.6%,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0.2%에 그치고 있다.

최근 이륜차 관련 안전기술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면서 보험 적용을 통해 이륜차 안전과 보험 가입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PS와 조향장치 감지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사고상황 및 위험운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륜차 관제시스템의 효과가 확실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이륜차의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횡단보도 주행, 과속, 칼치기 등 다양한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헬멧 착용 의무화 및 교통단속시스템 개선 외에는 이륜차 운행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안전 기술 개발 및 보험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이륜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출금리 너무해"… 금융민원 7.7% ↑

금감원 작년 금융민원 상담 동향
은행관련 민원 1.5만건… 44% ↑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불만 다수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자 은행 대출과 관련한 금융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분야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7.7%가량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상담 및 상숙인 전체 조치는 총 72만6061건으로 전년 72만590건 대비 0.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금융민원은 총 9만3842건으로 전년 8만7113건 대비 6729건 늘었다. 이외에 금융상담이 34만9190건으로 4.6% 감소했고, 상숙인 조치는 28만3029건으로 5.9% 늘었다.

금융민원 중 은행, 중소서민, 손해보험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 금융투자 분야 민원은 줄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이 53.0%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 21.9%, 은행 16.7%, 금융투자 8.4% 순으로 민원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만5680건 접수됐

다. 이는 전년 대비 43.8%(4776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보이스피싱 9.6% ▲예·적금 8.9% ▲신용카드 4.2% ▲방카슈랑스·펀드 2.6% 순으로 민원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측은 "높은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343건 늘었는데 아파트 중도금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예·적금 부분의 민원은 각각 19.9%, 1.4% 줄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사례 안내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금융민원은 지난해 1만3529건 접수됐다.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보험모집(2983건 감소) 등 대부분 유형에서 민원 접수가 줄었다. 금감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계약 건수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해보험 금융민원은 지난해 3만6238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계약의 성립과 해지(268건 증가), 고지와 통지의무 위반(132건 증가) 관련 민원 유형이 증가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포스코이앤씨, 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공개

'더샵' AI, IoT기반 스마트홈 활용
세대 내 홈네트워크 통해 일괄 관리
AIQ스마트케어로 응급시 즉시대응

포스코이앤씨가 시각·청각화기능을 활용한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더샵'의 인공지능(AI), IoT기반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내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및 노약자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노인·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는 아이패드로는 평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통해 일괄 관리가 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다.

리모콘 모양의 '원클릭 스마트스위



'원클릭 리모콘'. /포스코이앤씨

치'는 홈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디바이스에 모아 목에 걸 수 있게 고안돼 침대나 휠체어 이동시에도 가스잠금·난방·조명 등 가전기기 제어 가능하다.

'AIQ스마트케어'는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입주자의 현재 상태 등 응급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전달해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월패드와 달리 글씨가 없는 넓은 화면도 시각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 상황에 맞게 음성지원은 물론, 점자 전용 화면과 패드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성을 증진시켰다. 청각능력이 약한 경우에도 방마다 설치된 '스마트스위치'가 방 문자 호출이나 비상상황시 문자와 함께 색상 점멸 기능으로 입주자에게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더샵탕정인피니티 시티 2차' 등 올해 분양단지부터 사업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 스마트홈 상품 개발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모임 체크카드' 5만원 이상 결제시 캐시백

카카오뱅크, 최대 3000원 랜덤지급

캐시백은 5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 또는 3000원의 캐시백을 랜덤 지급한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가 있다면 해지않아도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결제 금액 및 결제처에 따라 두 카드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후에는 카드 이용내역 페이지에서 각 카드의 이용내역

을 분리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5월 24일까지 모임체크카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4억원 규모의 경품을 추첨 지급한다. 카카오뱅크 앱-이벤트페이지-모임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참여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1만3000개의 모임은 회식지원금 10만원(제세공과금 제외), 백화점 상품권, 치킨 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시스

내달 2.3만 세대 입주… 전월비 67% ↑

수도권 위주 새 아파트 입주 활발
6월에는 3만세대로 더 늘어날 듯

오는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2605세대로 전달 대비 약 67% 증가할 전망이다.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내달부터 다시 증가하며 6월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연립 제외, 총가구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은 45개 단지, 2만2605세대로 전달(1만3561세대)보다 67%(9044세대) 증가한다. 전년 동월(2만3803세대)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8238세대가 입주한다. 전월(3790세대)과 비교하면 1.7배(4448세대) 많은 물량이다. 경기 5675세대, 인천 2563세대가 입주하고 서울은 입주물량이 없다.

경기는 내달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광주탄벌서 히스타힐스1단지' (416세대), '동두천 중앙역테크루더퍼스트' (168세대), '안산한신더휴' (377세대),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안성공도' (705세대), '덕계역신산블루시엘' (72세대), 'e편한세상옥정 리더스가든' (938세대) 등 12곳의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1205세대), '영종국제도시서한아름' (930세대) 등 4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에선 1만4367세대가 입주한다. 내달 입주 물량은 수도권(36%)보다는 지방 비중(64%)이 높다. 특히, 경남 입주물량이 4640세대로 5월 도시별 입주물량 중 두 번째로 많다. 경남 지역 자체로는 지난 2019년 12월(1만858세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그 외의 지역은 전남(2305세대), 부산(2221세대), 강원(1516세대), 대구(861세대)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5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6월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월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총 3만990세대로 5월보다 37%(8385세대) 많고 올해 상반기 중 최대물량이다. 3·4분기에도 각각 3만14세대, 4만9686세대가 입주하는 등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수도권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자, 입주단지의 분양권 거리에 새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으로 당분간 입주장의 새아파트 관심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